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of the Families of Working Women in the Low-Income Group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강사 김 규 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Prof.; Jung Woo Lee

Lecturer; Kyu Won Kim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조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of clar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family and comparing low classes with other classes for the more reasonable and successful home admin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families of working women in the low income group.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September 1984 to 300 working women in the city of Seoul and Sung-Nam.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and the mean value were used for grasp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ies and F-test, Pearson's Correlations were used for 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 of the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Wife'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as increased while joint decision-making was decreased compared with those of unemployed wives' family and other classes.
- 2) Both of the degree of conjuga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joint decision-making were influenced by wife's educational level, disparity in educations of couple, husbands' occupation, family income, wife's age.

But duration of marriage affected only the degree of joint decision-making.

Especially family income and husbands' occupations turne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low income families.

- 3) In case of wife's satisfaction with her occupation, joint decision-making was well achieved or not according to certain decision items.

Though wife and husband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joint decision-making was not well performed in working wives' family with low income.

I. 서 론

1. 문제제기

부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부부간의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강조되었고 부인의 결정권을 통해 부인의 지위가 과거보다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주목해왔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산업구조가 근대화·세분화되어 노동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따라 여성의 경제참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¹⁾. 여성의 취업은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20C에 들어와 현저한 여성의 취업증가는 가부장적인 가치와 관습으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²⁾.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권의 획득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영향을 준 요인이며 특히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평등권을 누리게 된 여성의 수가 늘어났다³⁾.

노동통계연감(1983)에 따르면 1982년 여성 취업자 수는 5,642,000명으로 1970년보다 57.7% 증가되었고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취업여성이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에 와서 경제적인 조건과 가정생활을 관련시켜 서로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경제학·사회학·가정학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⁴⁾. W. Goode에 의하면 가정내 결정에 있어서 부인의 영향력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부인이 직업을 가지

는 경우 상층보다 하층에서 부인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⁵⁾. 따라서 저소득층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려되며, 이들 가정의 부부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관리행동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을 서울시·성남시의 저소득층 취업주부로 제한하였고 전체 가족이 아닌 부부만의 의사결정을 다뤘으며, 설문지의 답은 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결정

이 경우⁶⁾는 가정관리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리자가 가족성원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계획·조정·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Malloch와 Deacon⁷⁾은 가정관리란 계획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의 질에 좌우되어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으로 의사결정은 관리에 무수히 작용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Schlater⁸⁾는 관리란 관리자가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으로서 가정관리의 과정은 의사결정과 결정수행이라는 2개의 중요한 하위과정으로 나뉘어 진다고 했다. 그는 가정관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의존하는 일련의 결정들로 설명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의사결정은 서로 의존하는 결정들을

취급하는 관리과정의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며, 가정관리는 가정과 연관된 결정을 둘러싼 행동의 통합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은 관리의 핵심이며 관리행동의 주축인 것이다⁹⁾.

가정관리학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강조된 시기는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로서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동시에 결정의 배경에 있는 가치선택의 의의를 중시하였다¹⁰⁾. 의사결정을 통해 '가족권력'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을 기울인 최준희¹¹⁾ 연구는 1960년 Blood와 Wolfe¹²⁾에 의해 이루어졌다. Blood와 Wolfe는 배우자의 행동은 상대방의 비교적적인 자원 즉 교육, 직업, 수입, 사회참여정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통제된다는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을 내세워 부부간의 권력분배(distribution of power)를 설명하였다. Blood와 Wolfe의 자원이론은 개념상의 문제나 조사방법론의 타당성에 있어 여러 학자들로부터 의문을 제기 받아 왔는데 Heer¹³⁾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을 내세워 의사결정에 내포된 심리적·사회적 배경을 구체화 시켰고 애정(love)이나 배우자에 대한 욕구(need)가 권력구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Heer의 교환이론은 실제적인 가족의 역동성(family dynamics)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교환의 동적인 힘 즉 자원의 획득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자원의 손실로 초래되는 손해같은 cost의 개념을 논하지 않았으므로 자원이론에 널리 통합되지 못하였다¹³⁾. Rodman¹⁴⁾은 부부 의사결정 power에 관하여 여러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자원이론에 문화적 규범을 포함시켰고 이를 '규범적 자원이론(Normative Resource Theory)'이라 하였다. Centers¹⁵⁾등은 Blood와 Wolfe의 연구보다 좀 더 확대된 결정영역 표본(sample)을 이용한 연구를 하였고 Scanzoni와 Cromwell, Olson¹⁶⁾은 의사결정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화를 이루었다.

미국의 경우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진보는 규범적인 배경을 포함한 확대된 자원이론과 부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권력과정을 설명하는데 사회적 교환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킨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행해진 시기는 1975년 이후로 그전의 1960년대에는 주로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 분야의 연구가 행해졌다. 이 분야의 연구를 들면 윤부자¹⁷⁾의 가족계획에 관한 부부의 의사결정연구, 의사결정행동으로 부부의 권위관계를 조사한 이은숙¹⁸⁾의 연구, 농촌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한기¹⁹⁾의 연구 등이 있으며 제반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에 관한 서병숙²⁰⁾, 김복길²¹⁾, 임희규²²⁾, 황기아²³⁾, 김윤경²⁴⁾의 연구와 조혜정²⁵⁾의 부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주부의 연구, 제주도 가정의 의사결정을 통해 부부관계의 특성을 살펴본 김혜숙²⁶⁾의 연구, 최영애²⁷⁾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 연구가 있다.

2. 계층의 분류 및 특성

가족의 상호작용과정(family process)은 사회체제내의 가족의 지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가정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계층개념의 효율성을 인지하여 계층을 고려한 가정변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²⁸⁾.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 혹은 하위집단들은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서로 불평등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승화되어 있는 구조 즉 각층의 배열구조가 계층구조인데 계층질서에는 계급이외에 계층의 다른 여러 차원들이 포함된다.²⁹⁾

사회계급과 가정변수들과의 관련을 연구할 때 많은 연구자들은 남편의 직업상의 명성(occupational prestige)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단일 척도를 사용하거나 직업, 교육, 수입 등을 복합하여 이를 변수로 계급을 분류한다³⁰⁾.

Brody³¹⁾는 가정의 수입, 남편의 직업, 본인의 교육성취 수준으로 계급을 분류했고 Groat와 Neal³²⁾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남성의 직업으로 노동자계층과 중류계층을 분류했다.

대개 직업·수입·교육 등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계층구분 척도이며 가정학에서 사회계층을 논할 때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여러 사회 불평등 개념과 여러 직업상의 명성을 합측하는 기준으로 '직업지위(occupational position)'는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된다³³⁾.

직업이 사회계층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이고 가정밖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는 직업적

계층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므로³⁴⁾ 본 연구에서는 계층구분 척도로 부인의 직업을 사용하였다. 직업별로 사회계층을 분류한 Hollingshed의 기준에 따르면³⁵⁾ 본 연구 대상자인 파출부·工員은 단순노동자로 하층에 속해 있다.

Oppenheim³⁶⁾은 저소득층인 하층가정은 부족한 교육, 직업상의 제한, 육체노동과 같은 생활조건으로 인해 4가지 유형의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즉 제한된 직업·생활조건·사회 문화적 경험을 지니며 많은 사회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무력하고 자원이 부족하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3. 취업에 따른 여성지위의 변화

여성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데 그중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사회경제적 지위·부인의 고용 등은 지위획득과정에 대한 최근 모델에서 연구되는 가정변수들이다³⁷⁾.

여성의 지위획득 과정은 남성의 지위보다도 더 강하게 부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획득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수입이 가정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나타내는가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³⁸⁾.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성의 경제적 획득을 여성의 지위향상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한남제³⁹⁾는 여성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내의 주요 가사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직업부부 가정에서 부인의 권위가 일반가정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효제⁴⁰⁾는 여자가 직업을 가짐으로서 독자적인 소비권을 갖게 되고 여성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쓰여진다면 이 경제적 실권으로, 부인은 자녀문제에 있어 발언권이나 지배권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Hoffman은 직업여성의 부부간의 권위는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높은 계급에 속할수록 여성의 취업이 남편의 상대적 권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층에 이룰수록 여성의 취업이 남편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⁴¹⁾. Blood와 Wolfe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지

위수준에서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실제로 더 많은 권력(power)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전부터 계속 일을 했던 부인은 좀 더 많은 권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부인의 수입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층보다 중류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⁴²⁾으로 볼때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는 가정내 의사결정에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학 력

서병숙은 의사결정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부인의 학력이라 했고, 임희규는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합의결정율이 높다고 했다. 한편 Blood와 Wolfe는 학력이 높은 배우자가 결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

2) 연 령

한남제⁴³⁾·최재석⁴⁴⁾은 젊은 부부일수록 합의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고 연령이 많은 부부들의 경우엔 부인이 결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 Blood와 Wolfe는 부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상대적인 권력은 낮아진다고 했으며, 김윤경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인의 의사결정참여가 증가된다고 했다.

3) 결혼지속년수

최재석은 부인의 권력은 결혼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김윤경은 결혼년수가 짧은 집단일수록 부부 합의결정이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김혜숙은 결혼한 지 10~19년된 부인의 결정권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4) 수 입

최재석은 상류층일수록 남편의 결정은 감소하나 부부가 상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증가한다고 했고, 김윤경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일수록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는 증가한다고 했다. Baumert⁴⁵⁾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상적인 경비가 총수입에 점하

는 비율이 많아짐으로 부인이 수입사용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층에서는 남편이 결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5) 남편의 직업

Blood와 Wolfe, Centers 등은 남편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Safilios-Rothschild⁴⁶⁾는 자영 상공업자들과 미숙련 노동자들이 전문직이나 행정직 소유자들보다 가정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6) 만족도

Blood와 Wolfe는 부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가족형은 부인 우위형 가족이라 했고, 서병숙은 의사결정과 가족관계의 만족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김혜숙·김윤경은 결혼에 만족할수록 부부가 공동 합의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선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물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파악을 위한 11문항, 만족도 측정을 위한 2문항, 가정내 의사결정에 관한 22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척도는 항상남편·주르남편·부부공동·주르부인·항상부인의 Likert⁴⁷⁾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방참여점수: 항상남편·주르남편·부부공동·주르부인·항상부인의 5개 응답범주에 부인의 참여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까지 차례로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공동합의 점수: 항상남편·항상부인은 1점, 주르남편·주르부인은 2점, 부부공동은 3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평균치가 1에 가까우면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단독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3에 가까울수록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2. 조사대상

서울시와 성남시에 거주하며 파출부·工員 등의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직업을 계층구분척도로 사용할때 이들은 하층에 속하며,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란 이들의 하층 가정을 말한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1984년 9월 5일~9월 15일에 걸쳐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회수된 363부중 신뢰성이 부족한 63부를 제외한 300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자료처리는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AS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상관계수를 구하고 유의도 검증(F-test)을 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N=300)

일반사항	분 류	N(%)
가족구조	핵가족	239(79.7)
	확대가족	61(20.3)
婦人の 연령	20~30	39(13.0)
	31~35	52(17.3)
	36~40	72(24.0)
	41~45	68(22.7)
	46~50	50(16.7)
	50이상	19(6.3)
婦人の學歷	무 학	3(1.0)
	국민학교	94(31.3)
	중 학교	121(40.3)
	고등학교	76(25.3)
	대학교(전문대 포함)	6(2.0)
남편의學歷	무 학	4(1.3)
	국민학교	32(10.7)
	중 학교	59(19.7)
	고등학교	156(52.0)
	대학교(전문대 포함)	49(16.3)

주택상황	삭월세 전세 자기집	39(13.0) 157(52.3) 104(34.7)
결혼 지속년수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年以上	28(9.3) 35(11.7) 66(22.0) 60(20.0) 60(20.0) 32(10.7) 19(6.3)
취업년수	필요에 따라 임시 1~2년 3~4년 5~6년 7年以上	77(25.7) 74(24.7) 45(15.0) 43(14.3) 61(20.4)
남편의직업	무직 막노동·공원 회사원·공무원 운전자·기술자 자유업	27(9.0) 63(21.0) 106(35.3) 57(19.0) 47(15.7)
한달 총수입	10만원 미만 10~15만원 16~20만원 21~25만원 26~30만원 30만원 이상	4(1.3) 17(5.7) 47(15.7) 39(13.0) 76(25.3) 117(39.0)

2. 조사결과 및 분석

1) 부부 의사결정 참여도와 합의정도

① 부부의 의사결정참여

총 22개 결정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참여점수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의사결정참여 평균치는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40으로 가정내 의사결정에 남편보다 부인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참여가 높은 결정영역은 주로 식생활, 의생활, 부인의 직업선택,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결정사항들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결정에서 부인의 참여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만원정도 구매의 경우 남편 결정은 9.3%, 부인 결정은 46.0%로 서병숙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남편 결정은 현저히 낮

고 부인 결정은 매우 높다. 방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결정에서는 남편 결정이 11.0%, 부인 결정이 24.3%, 부부 공동결정이 64.7%로 한남제의 주택구입결정에 관한 결과와 비교할 때 남편 결정은 매우 낮은 반면 부인 결정과 부부 합의 결정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로서 볼 때 저소득층에서 부인이 경제권을 가지는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부인의 권한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결정사항은 신문구독·경조금액·TV프로·자녀교육·집수리 시기, 방법으로 김윤경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부부의 의사결정합의

<표 2-2>와 같이 22개 결정사항에 대한 합의점수 평균치는 2.20으로 임희규, 김윤경의 연구결과인 2.25, 2.2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합의가 잘 되는 결정사항은 자녀교육·자녀 수·방을 구하거나 이사·경조금액·저축방법·공휴일 계획의 순이며 각 영역별로 볼 때 자녀문제(2.53)·주생활(2.41) 영역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

2) 의사결정 사항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6개의 배경변인별로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와 공동합의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① 부인의 연령

부인의 연령별 부부 의사결정참여는 만원이 넘는 물품구입에서만 유의한 차($p < .05$)가 있었다.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인의 참여가 커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년수도 길어져 경제적인 결정에서 부인의 권한이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연령별 부부 합의결정은 <표 3-2>와 같이 5개 의사결정사항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부인의 연령을 20~35, 36~45, 46세 이상으로 구분할 때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합의정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합의정도가 낮아져 선행연구(한남제 1970, 최재석 1971, 김윤경 1983)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결혼지속년수

결혼년수는 합의결정에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혼년수별 합의결정은 전체 의사결정에 있어 집단간에 유의한 차($p < .05$)를 나타내 결혼년수별 5

〈표 2-1〉 결정사항별 부부의 의사결정참여 (N=300)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자	합상남편 N(%)	주르남편 N(%)	부부공동 N(%)	주르부인 N(%)	합상부인 N(%)	일방참여 주 (평균치)
방울 구하거나 이사하는 것에 관한 결정		9(3.0)	24(8.0)	194(64.7)	51(17.0)	22(7.3)	3.18
가구구입결정		13(4.3)	24(8.0)	136(54.3)	103(34.3)	24(8.0)	3.34
집수리(도배)의 시기, 방법에 대한 결정		21(7.0)	65(21.7)	141(47.0)	61(20.3)	12(4.0)	2.93
남편의 의복구입에 대한 결정		21(7.0)	57(19.0)	68(22.7)	121(40.3)	33(11.0)	3.29
자녀나 부모님의 의복구입에 대한 결정		5(1.7)	4(2.3)	43(14.3)	186(62.0)	62(20.7)	3.99
부인의 의출복 구입에 대한 결정		13(4.3)	19(6.3)	48(16.0)	155(51.7)	65(21.7)	3.80
평상시 식단에 대한 결정		3(1.0)	7(2.3)	18(6.0)	179(59.7)	93(31.0)	4.17
혼분식에 대한 결정		11(3.7)	30(10.0)	71(23.7)	121(40.3)	67(22.3)	3.68
김장에 대한 결정		2(0.7)	4(1.3)	33(11.0)	156(52.0)	105(35.0)	4.19
잔치 음식에 대한 결정		5(1.7)	5(1.7)	139(46.3)	99(33.0)	52(17.3)	3.63
생활비 계획에 대한 결정		8(2.7)	8(2.7)	105(35.0)	124(41.3)	55(18.3)	3.70
만원이 넘는 물건의 구입 결정		7(2.3)	21(7.0)	134(44.7)	101(33.7)	37(12.3)	3.47
저축방법<적금·계> 결정		11(3.7)	16(5.3)	174(58.0)	77(25.7)	22(7.3)	3.28
소액의 물품 구입에 대한 결정		0(0)	5(1.7)	39(13.0)	180(60.0)	76(25.3)	4.09
친지의 경조금액 결정		27(9.0)	58(19.3)	181(60.3)	29(9.7)	5(1.7)	2.76
자녀수에 대한 결정		13(4.3)	17(5.7)	230(76.7)	28(9.3)	12(4.0)	3.03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결정		13(4.3)	33(11.0)	227(75.7)	19(6.3)	8(2.7)	2.92
자녀의 용돈문제에 대한 결정		13(4.3)	24(8.0)	108(36.0)	125(41.7)	30(10.0)	3.45
부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		7(2.3)	6(2.0)	62(20.7)	152(50.7)	73(24.3)	3.93
신문 구독에 대한 결정		64(21.3)	133(44.3)	78(26.0)	20(6.7)	5(1.7)	2.23
공휴일 계획에 대한 결정		17(5.7)	56(18.7)	162(54.0)	49(16.3)	16(5.3)	2.97
TV 프로그램 선택의 결정		18(6.0)	89(29.7)	137(45.7)	39(13.0)	17(5.7)	2.83

총평균치 : 3.40

년미만~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으로 묶어 볼 때 대체로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합의가 잘 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5년미만~19년 사이에서 합의가 높게 나타난 것은 Blood와 Wolfe가 결혼 후 8~15년 된 집단에서 남편의 권력(power) 평균치가 감소한다고 한점과 어느정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사항별로는 〈표 4-1〉과 같이 가구구입, 자녀수, 자녀교육, 자녀용돈 결정에서 대체로 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③ 부인의 학력

부인의 학력별 부부 의사결정참여는 〈표 5-1〉과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p < .05$)를 보여 부인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항별로 보면 가구구입·신문구독결정에서는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참여가 높았고 자녀용돈결정은 그 경향이 다소 산발적으로 국민학교

에서 부인의 참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무학의 순이었다.

부인의 학력별 부부 합의결정도 〈표 5-2〉와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p < .05$)를 보여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합의도 잘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항별로는 자녀수·자녀교육·자녀용돈·부인의 직업·신문구독 결정에서 유의차를 보여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문제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결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참여가 증가하고 합의 결정도 잘 이루어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임희규, 김윤경, 최재석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부부의 학력차

부부의 학력차별 의사결정참여는 〈표 6-1〉과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차를 나타내

〈표 2-2〉 결정사항별 부부 의사결정 합의 (N=300)

의사결정사항	의사결정자 합상남편 합상부인 N(%)	수로남편 주로부인 N(%)	부부과동 N(%)	공동참여 점수평균치
방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것에 관한 결정	31(10.3)	75(25.0)	194(64.7)	2.54
가구 구입 결정	37(12.3)	127(42.3)	136(45.3)	2.33
집수리(도배) 시기, 방법의 결정	33(11.0)	126(42.0)	141(47.0)	2.36
남편의 의복 구입 결정	54(18.0)	178(59.3)	68(22.7)	2.05
자녀나 부모님의 의복 구입 결정	67(22.3)	190(63.3)	43(14.3)	1.92
부인의 의복구입 결정	78(26.0)	174(58.0)	48(16.0)	1.90
평상시 식단에 대한 결정	96(32.0)	186(62.0)	18(6.0)	1.74
혼·분식에 대한 결정	78(26.0)	151(50.3)	71(23.7)	1.98
김장에 대한 결정	107(35.7)	160(53.3)	33(11.0)	1.75
잔치 음식에 대한 결정	57(19.0)	104(34.7)	139(46.3)	2.27
생활비계획에 대한 결정	63(21.0)	132(44.0)	105(35.0)	2.14
만원이 넘는 물건의 구매결정	44(14.7)	122(40.7)	134(44.7)	2.30
저축방법<적금·제> 결정	33(11.0)	93(31.0)	174(58.0)	2.47
소액의 물품구입 결정	76(25.3)	185(61.7)	39(13.0)	1.88
친지의 경조금액 결정	32(10.7)	87(29.0)	181(60.3)	2.50
자녀 수에 대한 결정	25(8.3)	45(15.0)	230(76.7)	2.68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결정	21(7.0)	52(17.3)	227(75.7)	2.69
자녀들의 용돈문제 결정	43(14.3)	149(49.7)	108(36.0)	2.22
부인의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	80(26.7)	158(52.7)	62(20.7)	1.94
신문구독에 대한 결정	69(23.0)	153(51.0)	78(26.0)	2.03
공휴일 계획에 대한 결정	33(11.0)	105(35.0)	162(54.0)	2.43
TV 프로그램에 선택 결정	35(11.7)	128(42.7)	137(45.7)	2.34

총평균치 : 2.20

〈표 3-1〉 부인의 연령별 부부 의사결정 참여(N=300)

의사결정사항	부인의 연령						F.
	20~30 X(N=39)	31~35 X(N=52)	36~40 X(N=72)	41~45 X(N=68)	46~50 X(N=50)	51~60 X(N=19)	
만원이 넘는 물품의 구입	3.15	3.35	3.44	3.66	3.66	3.32	2.50*

*p<.05

〈표 3-2〉 부인의 연령별 부부 합의결정 (N=300)

의사결정사항	부인의 연령						F.
	20~30 X(N=39)	31~35 X(N=52)	36~40 X(N=72)	41~45 X(N=68)	46~50 X(N=50)	51~60 X(N=19)	
가구 구입	2.56	2.37	2.35	2.37	2.20	1.89	2.98*
집수리시기 방법	2.56	2.31	2.46	2.40	2.14	2.16	2.61*
자녀수	2.95	2.65	2.75	2.53	2.66	2.58	2.65*
자녀 용돈	2.46	2.38	2.22	2.01	2.16	2.11	3.16**
T.V 프로 선택	2.33	2.23	2.53	2.18	2.44	2.26	2.50*

**p<.01

〈표 4-1〉 결혼지속년수별 부부 합의결정 (N=300)

의사결정사항	결혼지속년수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년이상	F.
	\bar{X} (N=28)	\bar{X} (N=35)	\bar{X} (N=66)	\bar{X} (N=60)	\bar{X} (N=60)	\bar{X} (N=32)	\bar{X} (N=19)		
가구구입	2.64	2.54	2.29	2.30	2.25	2.34	1.95	2.82*	
자녀수	3.00	2.80	2.61	2.58	2.70	2.72	2.47	2.30*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2.96	2.57	2.77	2.70	2.58	2.69	2.47	2.22*	
자녀들의 용돈 문제	2.64	2.34	2.27	2.08	2.03	2.25	2.11	3.52**	
전체의사결정 평균치*	2.38	2.18	2.19	2.22	2.16	2.25	2.05	2.20*	

*총 22개 결정사항에 대한 평균치

〈표 5-1〉 부인의 학력별 부부의사 결정 참여 (N=300)

의사결정사항	부인의 학력	무 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F.
	\bar{X} (N=3)	\bar{X} (N=94)	\bar{X} (N=121)	\bar{X} (N=76)	\bar{X} (N=6)		
가구구입	2.33	3.27	3.40	3.30	4.17	2.58*	
자녀들의 용돈문제	2.67	3.66	3.41	3.24	4.00	3.38*	
신문구독	1.00	2.04	2.28	2.36	3.17	4.56**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3.02	3.37	3.43	3.38	3.75	2.68*	

〈표 5-2〉 부인의 학력별 부부합의 결정 (N=300)

의사결정사항	부인의 학력	무 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F.
	\bar{X} (N=3)	\bar{X} (N=94)	\bar{X} (N=121)	\bar{X} (N=76)	\bar{X} (N=6)		
자녀수	2.67	2.49	2.75	2.80	2.83	3.58**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2.00	2.53	2.77	2.78	2.67	3.70**	
자녀들의 용돈문제	2.67	2.00	2.26	2.42	2.00	4.98***	
부인의 직업선택	2.00	1.77	1.98	2.11	1.83	2.80*	
신문구독	1.00	1.83	2.10	2.20	2.17	5.26***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2.08	2.12	2.22	2.29	2.14	2.78*	

***p<.001

〈표 6-1〉 부부 학력차별 부부 의사결정 참여

의사결정사항	부부의 학력차	0(학력같음)	1(3~4년)	2(6~7년)	3(9~10년)	F.
	\bar{X} (N=105)	\bar{X} (N=135)	\bar{X} (N=46)	\bar{X} (N=4)		
가구구입	3.38	3.35	3.26	2.00	3.18*	
남편의 의복구입	3.36	3.40	2.85	3.50	3.09*	
잔치음식	3.71	3.67	3.46	2.50	3.54*	
소액의 물품구입	4.17	4.16	3.74	4.50	6.16***	
신문구독	2.32	2.20	2.07	1.00	3.40*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3.43	3.41	3.33	2.99	2.80*	

(p<.05) 학력차가 적을수록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항별로는 가구구입·남편 의복구입·잔치음식·소액물품구입·신문구독결정에서 유의차를 보였는데 이중 신문구독

은 남편결정 참여가 높은 영역으로 학력차가 클수록 남편이 단독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부 학력차에 따른 합의결정은 전체의사결정에 있어 어떤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표 6-2〉

〈표 6-2〉 부부 학력차별 부부합의 결정

의사결정	부부학력차				F.
	0(학력 같음) X(N=105)	1(3~4년) X(N=135)	2(6~7년) X(N=46)	3(9~10년) X(N=4)	
소액 물품구입	1.83	1.81	2.17	1.50	5.07**
신문구독	2.10	2.01	1.98	1.00	3.38*

〈표 7-1〉 한달 총수입별 부부 의사결정 참여(N=300)

의사결정사항	한달 총 수입						F.
	10만원미만 X(N=4)	10~15만원 X(N=17)	16~20만원 X(N=47)	21~25만원 X(N=39)	26~30만원 X(N=76)	30만원이상 X(N=117)	
자녀나 부모님의 의복구입	3.25	3.82	4.02	4.21	3.84	4.04	2.40*
평상시 식단	3.25	3.76	4.30	4.26	3.99	4.31	4.87***
혼·분식	3.25	2.88	3.77	3.97	3.54	3.76	3.35**
김장에 대한 일	3.25	4.12	4.11	4.36	4.09	4.28	2.59*
소액의 물품 구입	3.50	4.35	4.09	4.23	3.95	4.12	2.30*
자녀들의 용돈문제	2.00	3.41	3.70	3.54	3.45	3.38	2.93*
공휴일 계획	2.00	3.65	3.04	3.05	3.00	2.83	3.82**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2.93	3.45	3.40	3.51	3.37	3.40	2.25*

〈표 7-2〉 한달 총수입별 부부 합의결정 (N=300)

의사결정사항	한달 총 수입						F.
	10만원미만 X(N=4)	10~15 X(N=17)	16~20 X(N=47)	21~25 X(N=39)	26~30 X(N=76)	30만원이상 X(N=117)	
방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일	1.75	2.00	2.47	2.54	2.68	2.59	4.43***
가구구입	2.25	1.94	2.26	2.28	2.42	2.38	1.65
집 수리(도배) 시기, 방법	2.00	1.88	2.30	2.38	2.45	2.40	2.44*
남편의 의복구입	2.25	1.59	1.89	1.92	2.24	2.09	4.35***
자녀나 부모님의 의복구입	1.75	1.82	1.77	1.79	2.13	1.91	3.11**
부인의 외출복구입	1.75	1.65	1.83	1.79	2.07	1.90	1.94
평상시 식단	1.75	1.88	1.57	1.69	1.93	1.68	3.37**
혼·분식	2.25	1.95	1.94	1.82	2.09	1.97	.95
김장에 대한 일	1.75	1.53	1.81	1.59	1.91	1.72	2.00
잔치음식	2.25	1.88	2.23	2.08	2.45	2.30	2.31*
생활비 계획	2.00	1.53	2.04	2.08	2.22	2.24	3.34**
만원이 넘는 물건의 구입	2.25	1.82	2.26	2.15	2.54	2.28	3.81**
저축 방법(적금·계)	2.00	1.94	2.40	2.44	2.61	2.51	3.31**
소액의 물품구입	2.50	1.65	1.87	1.77	2.03	1.83	2.71*
친지의 경조금액	2.25	2.00	2.49	2.38	2.59	2.56	2.67*
자녀 수	2.50	2.29	2.66	2.56	2.71	2.78	2.34*
자녀의 진학 교육문제	2.50	2.24	2.62	2.64	2.80	2.73	2.97*
자녀의 용돈문제	2.00	1.76	2.09	2.10	2.24	2.37	3.49**
부인의 직업선택	1.75	1.65	1.70	1.69	2.01	2.12	4.90***
신문구독	2.25	1.71	1.91	1.90	2.14	2.09	1.92
공휴일 계획	2.00	1.76	2.28	2.54	2.50	2.52	5.12***
T.V 프로그램 선택	2.25	1.65	2.19	2.41	2.36	2.47	5.33***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2.09	1.82	2.12	2.12	2.32	2.25	8.41***

〈표 8-1〉 남편의 직업별 부부 의사결정 참여(N=300)

남편의 직업	〈무 직〉	〈노동직〉	〈고용직〉	〈기술직〉	〈자유직〉	F.
		박노동 工員	회사원 공무원	운전사, 미장 이, 도배기 자(저급 기술 소유자)	노점상, 소규모 모의가게, 농 장운영자, 부 덕방소개업자	
의사결정사항	X(N=27)	X(N=63)	X(N=106)	X(N=57)	X(N=47)	
집수리(도배) 시기, 방법	3.33	2.10	2.82	2.75	2.91	2.73*
평상시 식단	4.33	4.14	4.19	4.33	3.89	2.89*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3.33	2.87	2.95	2.84	2.77	3.65**
자녀들의 용돈문제	3.85	3.63	3.31	3.44	3.30	2.84*
공휴일 계획	3.67	2.08	2.85	2.88	2.81	5.75***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3.60	3.43	3.38	3.40	3.29	3.54**

〈표 8-2〉 남편의 직업별 부부합의 결정(N=300)

남편의 직업	〈무 직〉	〈노동직〉	〈고용직〉	〈기술직〉	〈자유직〉	F.
		박노동 工員	회사원 공무원	운전사, 미장 이, 도배기 자(저급 기술 소유자)	노점상, 소규모 모의가게, 농 장운영자, 부 덕방소개업자	
의사결정사항	X(N=27)	X(N=63)	X(N=106)	X(N=57)	X(N=47)	
방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일	2.19	2.67	2.58	2.60	2.43	3.05*
가구구입	2.04	2.17	2.43	2.46	2.32	3.23*
만원이 넘는 물건의 구매	2.11	2.38	2.38	2.49	1.89	6.28***
저축방법(적금·계)	2.33	2.48	2.51	2.67	2.21	3.28*
자녀 수	2.70	2.48	2.80	2.84	2.49	5.08***
자녀들의 진학, 교육문제	2.37	2.68	2.76	2.77	2.60	2.98*
자녀들의 용돈 문제	1.85	2.11	2.33	2.35	2.15	3.92**
부인의 직업선택	1.67	1.92	2.08	1.91	1.83	2.65*
공휴일 계획	2.19	2.57	2.45	2.56	2.17	3.95**
전체 의사결정 평균치	2.07	2.20	2.24	2.27	2.11	2.92*

와 같이 소매물품구입($p < .01$), 신문구독($p < .05$) 결정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냈다.

신문구독결정은 학력차가 클수록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매물품구입은 그 경향이 다소 산발적이거나 대체로 학력차가 클수록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한달 총수입

한달 총수입별 부부 의사결정참여는 전체의사결정에서 〈표 7-1〉과 같이 집단간에 유의차($p < .05$)를 나타내 수입이 21~25만원인 집단에서 부인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15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부인의 참여가 가장 낮았다
사항별로는 〈표 7-1〉에서와 같이 7가지 결정에

서 유의차를 보였고 이중 의생활·식생활·소매물품구입에 관한 결정에서는 수입을 크게 10만원 미만~20만원, 21만원~30만원, 30만원 이상으로 구분할 때 수입이 커질수록 부인의 참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달 총수입별 부부합의결정은 〈표 7-2〉에서와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차($p < .001$)를 나타냈는데 수입의 구간을 15만원 이하, 16~25만원·26만원 이상으로 구분할 때 수입이 많을수록 합의 결정도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항별로는 17개 결정사항에서 유의차를 나타내 대체로 위와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

은 결과로 저소득층에서는 수입이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경향은 부부 합의정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병숙⁴⁷⁾의 의사결정과 생활정도와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와 매우 다른데 이는 위의 연구가 여러 계층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⑥ 남편의 직업

남편 직업별 부부의 의사결정참여는 <표 8-1>과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차(p<.01)를 나타내 남편이 무직일 때 부인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동직·기술직·고용직·자유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항별로는 집수리시기, 방법·평상시 식단·자녀교육·자녀 용돈·공휴일 계획 결정에서 유의차를 보였고 대체로 남편이 무직·노동직일 때 부인의 참여가 높고 자유직일 때 부인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직업별 부부 합의결정은 <표 8-2>와 같이 전체 의사결정에서 집단간에 유의차(p<.05)를 보여 대체로 남편이 기술직일 때 합의가 높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고용직·노동직·자유직의 순이며 남편이 무직일 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사항별로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거나, 자녀문제, 부인의 직업선택 등에 관한 9개 결정사항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대체로 남편의 직업이 무직·자유직으로 직업에 안정성이 없을 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직·고용직으로 비교적 안정된 직업일 경우 합의가 잘 되는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에서는 남편의 직업적 안정성이 합의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Cavan⁴⁸⁾은 실적이 반복되는 저소득층에서 남편의 실적은 위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적으로 가정내 역할에 혼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편의 실적이 가정내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인의 만족도와 부부합의결정과의 상관관계
부인의 직업만족도·결혼만족도와 부부합의결정과의 상관관계는 <표 9-1>과 같다.

① 부부 합의결정과 부인의 직업만족도와의 상

<표 9-1> 부인의 만족도와 부부 합의결정과의 상관 (N=300)

의 사 결 정 사 항	직업만족	결혼만족
방울 구하거나 이사하는 일	.02	-.15**
가구구입	-.02	-.11
집수리(도배) 시기, 방법	.01	-.01
남편의 의복구입	.05	.03
자녀나 부모님의 의복구입	-.07	-.06
부인의 의복구입	-.06	-.12*
평상시 식단	-.08	-.07
혼·분식	-.13*	-.07
김장에 대한 일	.00	-.07
간치음식	.00	-.06
생활비 계획	.04	-.13*
만원이 넘는 물건의 구매	.04	-.09
저축 방법(적금, 제)	.11*	-.10
소액의 물품구입	-.11*	-.11
친지의 경조금액	-.06	-.06
자녀수	-.02	-.08
자녀들의 진학이나 교육문제	.00	-.16**
자녀의 용돈문제	.03	-.13*
부인의 직업선택	.02	-.14*
신문구독	-.07	-.05
공휴일 계획	-.03	-.17**
T.V 프로그램 선택	-.02	-.05
전체의사결정	-.03	-.17**

*p<.05 **p<.01

관관계

전체 의사결정에서는 어떤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항별로 식단계획(r=-.13, p<.05), 저축 방법(r=.11, p<.05), 소액지출(r=-.11, p<.05)에 극히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저소득층에서 저축 방법 결정은 부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합의가 잘 되었으나 식단·소액지출결정은 직업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여 부인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때 적은 경제적 지출이나 식단계획에 관한 결정에서는 부인이 단독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부합의결정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전체 의사결정에서 극히 낮은 부적상관(r=-.17, p<.01)을 보여 결혼생활에 만족하더라도 부부간에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항별로 볼 때 저소득층에서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경우 대체로 경제 적인 문제가 개입되거나, 부인 자신의 직업, 자녀문제 등에 관한 결정에서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더라도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김윤경⁴⁹⁾, 김혜숙⁵⁰⁾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본 연구가 위의 연구와는 달리 계층과 부인의 취업을 고려해 대상을 제한한데서 오는 차이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 부인의 취업은 가정내 의사결정에서 부인의 권한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경제문제가 개입된 결정에서 부인의 권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 합의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의 경제권이 부부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인의 연령·학력, 부부 학력차, 결혼년수, 수입, 남편의 직업은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는 변인이었고, 특히 수입과 남편의 직업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합의정도가 높아졌고, 남편이 무직·노동직일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기술직·고용직일때 합의가 잘 이루어져 저소득층에서는 수입과 남편의 직업적 안전성이 의사결정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인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저축방법은 남편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소액지출이나 식단체획에서는 부인이 단독결정을 하고 있었다. 결혼만족도와 합의결정과는 전체적으로 부적상관을 보여 결혼에 만족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거나 부인 자신의 일에 관한 결정에서는 부인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있었다. 이점은 매우 주목되는 결과이나 결혼만족도 여부에 대한 응답이 부인에 의해 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장차 남편에 관한 사항도 고려한 연구가 기대된다.

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 유형표집하였고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함께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들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곤란하였다. 앞으로 부인의 취

업여부를 고려한 의사결정연구가 계층별로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면 부인의 경제권이 결정권한에 미치는 영향과 의사결정에 있어 각 계층간의 특성,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크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노동부, 여성과 취업, 노동부 부녀소녀과, 1981.
2. Melson G.F., *Family and Environment An Ecosystem Perspective*,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80.
3. 고영복,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 여성연구, 제10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4. Rice A.S., "An Emerging Economic Framework for Analyzing Family Managerial Behavior", *The Family focus on Management*, Published by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0.
5. 한남제, "직업부부의 가족문제", 경북대 논문집, 제16집, 1972.
6. 이정우, 가정관리 연구, 서울:수학사, 1981.
7. Maloch F., R.E. Deacon, "Proposed Framework for Home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1, 1966.
8. Schlater J.D.,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No. 2, 1967.
9. Plonk M.A., "Central-Satellite Decision Complex",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0, No. 10, 1968.
10. 이정우, 견거서, pp. 55~56.
11. Blood R.O., Jr. D.M. Wolfe,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1960.
12. Herr D.M., "The measurement and bases of family power: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1963, pp. 133~139.
13. Safilios-Rothschild C., "A Macro and Micro 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

- r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2, 1976.
14. Rodman H.,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 national discu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1967.
 15. Centers R., B. Raven & A. Rodrigues, "Conjugal power structure: A re-exa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1971.
 16. McDonald G.W., "Family Power: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4, 1980.
 17. 윤복자, "가족계획에 대한 의사결정(I)—부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 조사편", 연세논총, 제13호, 1976.
 18. 이은숙, "한국 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근대화의 면", 한국사회학, 제11집, 1976.
 19. 이한기, "농촌가족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20. 서병숙,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10대 자녀를 둔 부부가족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77.
 21. 김복길, "가정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의 연구—서울시 주거주부를 중심으로—", 한성대 논문집, 제2집, 1978.
 22. 임희규, "가정생활에 있어서 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서울 중심으로—", 이대 석사학위논문. 1978.
 23. 황기아,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제 5 집, 1979.
 24. 김윤경,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25. 조혜정, "부부 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 집, 1981.
 26. 김혜숙,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I) 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 호, 1982.
 27. 최영애, "도시주부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의사결정의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28. Otto L.B., "Class and Statu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7, No. 2, 1975.
 29. 홍두승, 서관모, "사회계층의 실태와 개념상의 재구성문제", 계간경향, 사상과정학, Vol. 1, No. 2, 1983, pp.53~54.
 30. Mortimer J.T., "Social Class work,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2, 1976.
 31. Brody G.F.,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stated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in observed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1968, pp. 656~65.
 32. Groat H.T. & A.G. Neal "Social Class and Alienation Correlates of Protestant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1973.
 33. Otto, Loc. cit.
 34. 조형, "여성지위에의 사회계층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5집, 한국사회학회, 1981.
 35. 남은주, "도시주부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하층주부를 대상으로—",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2. p.4.
 36. Oppenheim I., *Management of the Modern Home*, 2nd., N.Y.: Mamillian publishing Co., Inc, 1972.
 37. Otto, Loc. cit.
 38. HuDis P.M., "Commitement to work and to Family: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woman's earning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2, 1976.
 39. 한남제, "한국도시 가족의 권위관계: 미국 도시가족과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제 6 집, 1970.
 40.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경문사, 1985.
 41. _____, 전계서, p.366.

42. Foster A.C. & E.J. Metzen, "Wife's Earning and Family Net Worth Pos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2, 1981.
43. 한남제, 전계논문, 1970.
44. 최재석,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제14집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1.
45. Baumert G., *Deutsche Familien nach dem Kriege*, Darmstadt: Eduard Roether, 1954, 이한기, 전계논문, p.32.
46. Safilios-Rothschild C., "A Comparison of Power Structur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Urban Greek and French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29, 1967, pp.345~53.
47. 서병숙, 전계논문.
48. Cavan R.S., "Unemployment, crisis of the common man,"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1959, pp.139~46, D.Brinkerhoff, "Marital Satisfaction in an Economically Marginal popu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No. 2, 1978, p. 260.
49. 김윤경, 전계논문.
50. 김혜숙, 전계논문.